

데스크시각

정기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산하가 웃을 갈아입었다. 잔설 아래 납작 엎드린 능선들은 수련수련 기지개를 켜고, 언 땅에 내렸던 서릿발도 시나브로 자취를 감췄다. 가을같이 뒤뜰, 황량한 벌판엔 파릇파릇한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영롱한 아침이슬을 머금은 은갖 들꽃이 바람에 기대어 허리를 곧추 세울 것이다.

밭풀들인 만큼 수확

봄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농어민이다. 겨우내 쾅쾅 얼었던 눈을 쟁기질하여 모내기를 준비하고, 빼반 앙상히 남은 채 지양분을 모두 빼앗겼을 밭에도 퇴비며 비료를 갈아 땅심을 높여야 한다. 올 한해 풍성한 수확은 누가 얼마나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바닥을 갈았느냐에 달렸다. 어슴색별 살을 에는 바닷바람에 대거리하며 양식장에 나갔던 어민들도 김발과

미역발을 철거하고 있다. 감태며 과래, 툫이나 매생이는 제철을 지났고 이젠 바지락·백합 등 조개류 종패를 살포해야 한다. 북풍한설에 양버팀 하던 실뽕장이 '시라시배'도 끝물이고, 거센 파도에 닻을 내

렸던 어선들도 쫓겨진 그물코를 꿰매고 돛을 세우면서 새우·꽃게·병어잡이 출어 준비에 한창이다. 첫밭을 일구는 도회민도 마음이 설레는 때다. 상추·열무·근대·숙갓·케일... 채소 씨앗을 직파한 뒤 토마토·가지·고추 육묘를 골라야 한다. 줄기가 곧고 웃자라지 않은 모, 병해충이 없는 모, 잔뿌리가 많고 밀생된 모종을 심고 가꿔야 건강하고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기습 풀리며 4월을 기다린 사람들

이 어찌 그대들뿐이라. 총선을 앞두고 표밭을 누벼온 후보자들도 갈길길에 섰다. 유권자들은 상당 기간 그 종자의 좋고 나쁨을 이모저모 살펴보았을 것이다. 같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인지, 금품이나 관권에 찌든 인물인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인지, 아니면 신실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알짜인지를.

경계할 대상은 그것만이 아니다. 당선되면 장기 휴직을 하고 낙선되면 슬그머니 대환으로 복귀하는 폴리페셔(polifessor)에게선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없다. 낯

투표는 농사나 갯가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밭작물은 주인 밭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속담은 선거판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쫓정이를 골랐다가 뒷날 후회해봤자 너무 늦다.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하여 '좋은 물건'을 고르는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

잘못된 선택 되돌릴 수 없어

지역민의 뜻은 '소양치 동맹 쳐다보듯' 하고 실제 눈치만 보는 사팔뜨기, 정당이 정치는 상관없이 당선만을 좇는 기회주의자, 여의도에 입성 후 표변(豹變)하는 거드름쟁이 등등을 선출한 대가는 훗날 처절히 감내해야 한다.

불법과 탈법, 고소 고발로 일쫓은 진흙탕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잔인한 4월'은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에게 오래도록 각인되어야 한다.

'4월 11일'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유네스코(UNESCO)가 '2012 세계문화유산'로 선정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은 이렇게 설교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이가 좋은 정치가다.'

〈편집국장〉meonsan@kwangju.co.kr

선거, 또 후회할 것인가

은 강의 노트엔 도덕이나 양식이란 단어가 없다. 학문적 이론과 전문성을 현실에 접목,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려 했다는 자기 변명만이 즐비하다.

특정 정파의 입맛에 맞게 편대를 휘두르다 나팔수로 전락하는 폴리널리스트(polinalist)도 정치판을 흔탁 시키는 중앙(曠蕪)이다. 권력과 언론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 견제와 감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 언론이 정계 진출의 징검다리일 뿐일 것이다.

기고



이정록

외국 도시의 강가에 와있는 느낌이었다. 오토캠핑장 텐트 속에서 사회공부를 하는 중학생 모습은 한가로웠다. 자전거 길을 달리는 라이더들의 세련된 복장은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일요일 방문한 영산강 모습이 그랬다. 둔치에 조성된 체육시설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첨단지구 산책로 아래에 있는 3개의 축구장에서는 축구시합이 한창이었다. 옆의 야구장에서는 광산구 야구연합회가 주최하는 광주어룡신협 이사장배 정규리그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산동교, 광산

손님맞이 준비 끝낸 영산강

대교, 어등대교, 극락교 주변에 조성된 체육 시설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풍영정에서 내려다보는 영산강 수변경관은 굉장히 보기 좋았다. 말끔하게 단장된 둔치 덕분에 하폭이 넓어졌고, 물도 맑았다. 풍영초교 앞의 광고구무보에는 물이 넘실거렸다. 둔치에 조성된 구불구불한 산책로는 산보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걷거나 뛰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풍영정전이 합류하는 곳에 조성된 수변공원의 아치형 보도 데크는 너무 멋졌다. 승촌보 공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만든 걸작이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10만평의 공원은 완벽했다. 운동시설, 놀이시설, 체력시설, 전망시설은 물론이고 파출소까지 갖췄다.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았다. 아이들은 미끄럼틀에서 놀기 바빴고, 인라인 스

케이트를 즐기는 꼬마들도 여기저기 보였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영산강과 무등산, 대촌 들녘, 농촌마을 등은 좋은 사회교과서였다.

승촌보 공원의 압권은 단연 오토캠핑장이었다. 오토캠핑장에는 60여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20여개 정도의 텐트가 쳐져 있었다. 소규모 캠핑카에서부터 6인용 텐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파고라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텐트 안에서 아빠와 함께 수학문제를 푸는 초등학생, 음료수대에서 과일을 따먹는 모습 등은 인상적이었다. 대도시 근교의 수변공원 풍경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풍어의 거리로 유명한 영산포의 영산대교 주변은 멋진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영산강체육공원과 주변 둔치의 유채꽃이 만개

하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다.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죽산보 주변의 둔치도 깨끗하게 정비됐다. 죽산수변공원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방문객은 많지 않았다. 5월이 되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남도의 생명선인 영산강이 재탄생했고, 지역민에게 되돌아 왔다. 2조 8천억원이 투입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다. 훌륭하게 쌓인 퇴적물이 많이 제거됐다. 방치되었던 둔치가 정비되어 아름다운 모습도 되찾았다. 주민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둔치에 74개의 크고 작은 수변공원이 새롭게 조성됐다. 산책로와 자전거길, 수변공원은 벌써 지역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 됐다. 죽어 가던 영산강이 깨끗하게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변신했다.

영산강은 손님맞이 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다. 수변공원 화단에 봄꽃은 피지 않았지만, 지역민의 나들이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말에 승촌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보면 어떨까.

〈전남대 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

은펜칼럼



박홍근

영화 '건축학개론'이 흥행을 하고 있다. 이는 건축전문가를 위한 영화가 아니다. 엄태웅(승민)과 한가인(서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기억', 애절하고 소박한 사랑이야기다. 집 짓는 과정과 사랑이라는 소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지루하지 않게 적당한 긴장과 웃음을 주고 있다. 첫사랑을 만났던 건축학개론 수업시간, 그 후 15년이 지나 헤어졌던 승민이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실을 불쑥 찾아가서 서연은 집을 지어 달라고 의뢰한다. 설계도를 확정해 가는 과정, 집이 완성되어 지는 건 여정속의 이해와 갈등, 해결의 과정 속에서 첫사랑을 기억한다. 그리고 추억하며 과거와 현재가

영화 '건축학개론'

겹치고 사랑과 건축이야기가 연결된다. 첫사랑이 금금해서 찾아 왔다는 서연, 현실의 고객이 된 그녀와 건축가로 만난 또 하나의 첫사랑인 승민, 그 사랑이야기 속에 건축설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위한 '추억과 기억' 이야기 가 잘 녹아 있다. 집이 새롭게 완성된다. 그곳엔 어린 시절 키가 자란 것을 표시했던 추억의 흔적이 붉은 벽돌 벽에 남아있고, 우물거 밭자국이 있었던 곳은 물고기가 있는 작은 연못으로 변해 있다. 옛 기억을 되살리며 추억하게 하는 기억의 장치들로 등장한다. 이런 요소는 새로 만들어진 집을 편안하게 하고, 낯설지 않게 해준다. 사람의 기억과 추억이 집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기억의 공간과 추억의 장소는 우리네 동네와 도시에서도 그대로 간직되는 게 필요하다. 대학시절 승민과 서연이 살던 정릉 동네 풍경도 지금은 사라지고 찾기 힘든 서울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 사이사이에

좁은 골목이 살아있고, 그 골목길 사이를 걸을 때 옛 기와집과 개량한옥, 근대식 슬래브집들의 처마와 외벽이 연출하는 풍경이 살아 있다. 이런 정겨운 동네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도 없던 시절의 평범한 동네의 모습들이었다. 우리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많이 잃은 후, 이제야 조금씩 그 가치를 인식해 가는 건축과 도시정책에 위안을 삼아 본다.

우리 그림이나 음악을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은 훨씬 더 일상적이다. 집과 그의 건축물, 도시의 설계와 완성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엔 '우리'가 만들고, 그 속에서 사는 것 또한 모두 '우리'에게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네 삶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며 소중한 것들이다. 그리고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건축은 삶의 문화를 내포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청소년 게임중독 빠지지 않게 근본 대책 마련하자

빈곤층일수록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게임중독 학생 숫자가 월등히 많다. 컴퓨터 게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게임에 빠져드는 것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게 1차적 문제점이고, 게임의 내용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라는 점이 2차적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비만의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국 게임중독은 심신에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업을 위해 부모 모두 일을 나가거나,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한 부모인 경우가 많다. 결국 아이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은 통제가 어렵고 부모가 귀가하는 새벽 2~3시까지 게임을 한다. 방학 때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 이를 날 오전 늦게 부스스 일어나는 게 이 학생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컴

퓨터가 고장 나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릴 정도라고 한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컴퓨터 없는 집은 없고,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동안엔 전부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보면 된다.

즉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에 몰두하는 식으로 자기감정을 컴퓨터에 쏟아붓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컴퓨터에서 떼어내려면 혼자 있는 아이들이 컴퓨터 대신 뭘 잡게 할 것인지 찾아줘야 한다. 이는 하루속히 정부와 학교, 학부모가 공동적으로 고민해서 해답을 내놔야 할 일이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신수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선거 참여·바른 선택 '구태정치' 바꾼다

4·11 총선의 날이 밝았다. 이번 총선은 지난 4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광주·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다. 특히 20년 만에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다는 데 막중한 의미를 지닌다.

총선 결과가 19대 국회의원인 아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다음 정권의 향배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단순히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여소야대나, 여대야소냐에 따라 18대 대선구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이자, 사실상 대선 1차의 승부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에서 정치 리더십이 교체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급격한 정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불안한 국제경제와 물가 위기, 서민들의 생활고 등도 시급하고 중대한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적으로도 향후 4년이 도약이나,

침체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이 얼마나 선거에 참여하느냐, 누굴 뽑느냐에 따라 '국운'과 지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선거 참여만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후진 정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후보자 결정역시 유권자의 몫이다. 잘못 선택하면 그 패자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오기 마련이다.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결코 노는 날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도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가능한 한 휴무를 하고, 불가피하게 정상업무를 할 때는 종업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의 변화를 내손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 꼭 기본 권리를 행사하자.

장애인들 30년 '섬노예' 아직도 이런 일이

전남·북 도서지역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유인해 강제노역을 시키며 임금을 착취해온 악덕 업주와 일당아 경찰에 적발됐다. 힘든 일에 비해 보수가 낮은 섬지역 양식장의 경우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인권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해양경찰은 9일 지적장애인 수십 명을 위반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기거나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로 부려온 일당 6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노숙자 등을 상대로 속삭이 제공과 함께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유인해 전남·북지역 어선과 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뒤 30년간 수억 원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 총책은 지적장애인 100여 명 중 작업이 가능한 70여 명을 신안 등지의 섬과 선박에 팔아넘기고, 지적 수준이 낮은 30여 명을 노예처럼 부려왔다.

또, 알선책을 통한 성매매로 화대를 챙기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명의로 사망·상해 보상을 가입한 뒤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 또는 아들 명의로 해놓고 수협 등에서 나온 상해 보상금도 가로챈 것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인권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나 이런 인면수심이 어디에 있는가.

지적장애인 등이 이처럼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데는 무엇보다 당국의 장애인 관리와 감독 부실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0년 동안이나 계속해온 강제노역을 어떻게 모른 채 방치할 수 있었던 말인가. 제 역할을 했다면 가담한 일인가.

당국은 취재에 도서지역과 벽지 등 전국의 취약지역을 총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해양경찰이 조만간 도서지역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더니 다시금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008년 3월 13일, 미국의 아침은 뉴욕주지사의 스탠들로 술렁였다. 주인 공은 엘리엇 스피처. 그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미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맨하탄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전설적인 마피아 갱배 노패밀리를 박살낸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또, 금융계 부패를 척결해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렸으며, 48세의 젊은 나이에 뉴욕주 지사로 당선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손꼽혔던 개혁가이기도 했다.

스피처는 그러나 출장을 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오묘한 힘'이와 다양한 층을 가진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22세의 크리스틴과 밀회한 사실이

모하도도 멍청한 잘못 또는 실수'로 무너져 내린 사례는 적지 않다. 호텔 여성 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물러난 스트로스 칸을 비롯해 백악관에서 인턴사원과 바람을 피웠던 빌 클린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는 신정아 사건과 연루된 변양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철실장 등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치정(癡情)'사건에

연루돼 자신의 권력을 파탄 냈다. 최근엔 감사원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이, 내연녀와 저지른 불륜 행각이 사찰을 통해 드러나는 바람에 현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돈과 권력, 명예를 거머쥔 이들의 치명적 실수는 너무도 아이없



들통나면서 무너져 내렸다. 검사시절 마추 근절에 앞장섰던 그는 키 165cm, 몸무게 48kg의 크리스틴과 호텔 밀회를 예약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 추적이 가능하도록 자기 예금계좌에서 4300달러를 송금하기까지 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절제를 갖추고 명성을 쌓아올린 '실력자'들이 이처럼 '무

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식의 심연을 떠도는 음습한 본능과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파멸의 순간을 뻔히 바라다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인간이 '서글픈' 한계에 책임을 돌리다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일까.

／홍행기정치부처장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대우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